

COACHING STAFF



감독 | 박동혁 코치 | 유병훈 코치 | 최익형 코치 | 이완 트레이너 | 엄성현 트레이너 | 정성령

GK



1 박형순 184cm 78kg 21 박주원 190cm 77kg 31 양형모 185cm 81kg 41 최봉진 193cm 83kg

DF



2 박선용 173cm 67kg 3 이주용 181cm 76kg 4 김상필 188cm 84kg 5 이홍 187cm 83kg 8 이은름 177cm 73kg 15 안현범 178cm 72kg 16 김동진 177cm 74kg 20 김동철 180cm 75kg
26 김준수 185cm 78kg 32 김봉래 177cm 65kg 33 이한샘 185cm 80kg 39 민상기 184cm 79kg 90 구대영 177cm 72kg

MF



6 김중국 179cm 71kg 7 이형용 180cm 75kg 11 서용덕 175cm 65kg 13 김영남 178cm 75kg 17 조성준 176cm 67kg 19 임창균 174cm 64kg 22 허범산 177cm 70kg 23 김도혁 174cm 70kg
24 박세직 178cm 76kg 25 조범석 182cm 76kg 28 주세홍 174cm 68kg 29 이명주 175cm 68kg 66 황인범 177cm 64kg 77 김부관 172cm 60kg 88 김선민 168cm 65kg

FW



9 한의권 181cm 72kg 10 이재안 181cm 81kg 12 김훈도 187cm 74kg 14 김민균 173cm 68kg 18 고무열 185cm 78kg 30 김현 188cm 80kg

NEXT MATCH UP



아산 무궁화 FC

VS



부천 FC 1995

K LEAGUE 2 | 6R

2018. 4. 7(토). 17:00 이순신종합운동장



아산 무궁화 FC

TODAY MATCH UP
K LEAGUE 2 | 4R

2018. 3. 24(토). 17:00 이순신종합운동장



FC 안양



겉질을 깨려는 골잡이 김현

차세대 공격수, 혹은 미완의 대기. 외부에서 바라보는 김현에 대한 평가들이다. 극과 극을 오가는 이 두 개의 평가는 김현에게는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자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현이 더 큰 선수로 자리나기 위해서 이 상반된 평가를 반드시 깨뜨려야 할 겉질들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김현은 아산 공격수로 변신한 후 이 겉질들을 서서히 깨뜨려나가고 있다. 지난 2017시즌을 통해 커리어 하이 기록하며 불붙기 시작한 김현은 2018시즌에는 더 강력한 골잡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 의지를 이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골로서 승리를 이끄는 스트라이커라는 포지션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클 듯하다.

A. "스트라이커로서 골에 대한 욕심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골은 혼자서 넣을 순 없죠. 감독님께서 지시하는 전술을 동료들과 호흡을 잘 맞춰나가면 골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 봐요."

Q. 2018시즌 아산은 미드필더가 대단히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격수로서 기대하는 바가 클 듯하다. 어떤 선수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가?

A.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아요. 제게 큰 행운이자 기회라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해 발을 잘 맞추어나가고 싶습니다. 모든 선수와 호흡이 잘 맞지만 그 중에 김동철·이주용 선수와 특히 잘 맞는다고 봐요. 특히 이주용 선수는 고교 동창이라 서로 많이 의지합니다."

Q. K리그에서 가장 젊은 사령탑인 박동혁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다. 젊고 진취적인 지도자와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게 많을 듯하다.

A. "선수 시절도 함께 보낸 감독님이십니다. 박 감독님을 만난 건 내겐 정말 말 큰 행운이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현역 시절에는 정말 축구를 잘하신 분이었고, 그런데 지도자가 된 지금은 정말 축구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박 감독님 밑에서 착실히 축구를 배우겠습니다."

Q. 아산 입단 후 발전을 이룬 부분은? 지난해 커리어 하이인 6골 3도움을 올린 만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클 듯하다.

A. "그저 매년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지난해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한 개 차로 놓쳐 많이 아쉽긴 했지만, 아쉬움만큼 더 성장할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상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Q. 아산의 승격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아산의 승격, 자신있는가?

A. "100%, 아니 120%라고 봅니다. 제가 전역하기 전에 조기 우승을 이루는 게 제 목표예요. 박동혁 감독님을 비롯해 코칭스태프, 소대장님, 선수들, 그리고 팬들과 함께 K리그2 우승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Q. 안양전에서 골을 넣는다면 하고 싶은 세리머니는? 그리고 아산 팬들에게 전할 각오는 남겨달라.

A. "아산 서포터스 '아르마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심이 담긴 사랑과 응원을 해주시는 만큼 한번쯤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항상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꼭 우승 트로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료들이 바라보는 김현은?



황인범(MF) "후식을 좋아하
는 형? 같은 방을 쓰는데 밖
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웃음). 원톱은 외로운 포지션

인데, 매 경기 상대와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잖아 득점도 기록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라
운드에서 외로우면 다행인데 생활에서도 좀 외로
워하는 것 같아요. 어서 여자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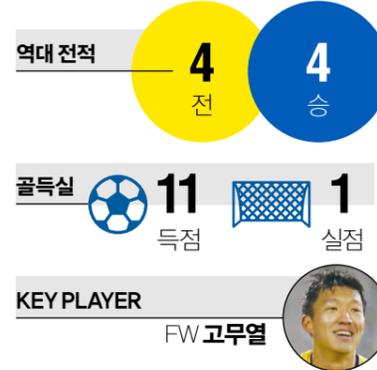
이재안(FW) "굉장히 과묵하
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았는
데 알고보니 재미있는 친구
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장에

서는 항상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나이
는 어려도 프로다운 모습이 인상적인 친구입니
다. (김)현이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상기(DF) "낯가림이 많이
심한 편이라 처음 만나는 사
람은 친해지기 쉽지 않은 스
타입입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보면 친근하면서도 유쾌한 성격이예요. 현이의 장
점은 포스트 플레이입니다. 수비수와 경합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유연한 플레이를 해줍니다. 연계
를 통해 여러 기회를 만들어준과 동시에 골밑에
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격수예요. 그
래서 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산은 지난 3라운드 부산 아이파크 원정에서 의외의 일격을 당했다. 개막전부터 시동이 걸렸던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린 점은 매우 아쉽기만 하다. 그래서 이번 안양전은 매우 중요하다. 무릇 강호는 패배는 있을지언정 무승은 용납하지 않는 법이다. 아산은 안양을 꺾고 우승을 노리는 강자다움을 증명하려고 한다. 과거 전적이 말하는 두 팀의 전력 차는 매우 크다. 지난해 아산은 안양을 일방적으로 짓눌렀다. 네 차례 맞붙어 전승을 거두었으며 열한 골을 몰아치는 동안 단 한 골만을 내주었다. 당시와 비교해 양 팀의 객관적 전력 차는 크게 변함이 없다. 이번이 없는 한 한 차원 높은 전력을 갖춘 아산의 일방적 우위 속에 진행될 공산이 크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고무열이다. 2018시즌을 앞두고 아산 유니폼을 입은 고무열은 시즌 개막 후 두 경기 연속 골을 몰아치며 새로운 에이스로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안양전에서 만 네 골을 몰아친 김현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PLAYERS POSITION 4-4-2

FW 18 고무열 (3경기 2득점)	FW 30 김현 (3경기)
MF 9 한의권 (3경기 1득점 1도움)	MF 15 안현범 (3경기)
MF 10 이재안 (3경기)	MF 6 김중국 (3경기 1도움)
MF 19 임창균 (174cm 64kg)	MF 7 이창용 (2경기)
MF 11 서용덕 (175cm 65kg)	MF 13 김영남 (178cm 75kg)
MF 22 허병산 (177cm 70kg)	MF 14 김민균 (1경기)
MF 23 김도혁 (174cm 70kg)	MF 24 박세직 (178cm 76kg)
MF 25 조범석 (182cm 76kg)	MF 29 이명주 (1경기)
MF 28 주세종 (1경기)	MF 66 황인범 (3경기 1득점)
DF 3 이주용 (3경기)	DF 88 김선민 (168cm 65kg)
DF 8 이은름 (177cm 73kg)	DF 5 이용 (183cm 83kg)
DF 16 김동진 (177cm 74kg)	DF 4 김상필 (188cm 84kg)
DF 33 이한샘 (1경기)	DF 20 김동철 (2경기)
DF 39 민상기 (3경기)	DF 26 김준수 (185cm 78kg)
GK 1 박형순 (3경기 1실점)	GK 21 박주원 (190cm 77kg)
GK 31 양형모 (185cm 81kg)	GK 41 최봉진 (193cm 83kg)
DF 2 박선용 (173cm 67kg)	DF 32 김봉래 (177cm 65kg)
DF 77 김부관 (172cm 60kg)	DF 90 구대영 (3경기)